

위재권 편저



이 책의 특징

1. 이론 · 각론 · 교과교육론 단권화
2. 초등 · 초특 · 중등 ·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수록
3. 2022개정 교과별 연수 자료 분석 수록
4. 과목별 족보 목차를 제시해서 학습내용 체크리스트

과목

국어 족보
영어 족보

2026대비 위재권 과목별 족보 보개기

국어 족보 인출하기

2022개정 특징 / 들말 족보	Page
1 지식 · 이해 용어해설	4
2 과정 · 기능 용어해설	4
3 가치 · 태도 용어해설	5
4 성취기준 개발	6
5 매체 영역 신설	6
6 기초 문식성 강화	7
7 국어교육 특징 강조	7
8 언어 환경 반영	8
9 문학 성취기준보완	8
10 진로연계교육	9
11 상호 교섭성	9
12 말차례 / 순서 교대	10
13 대화의 원리	10
14 맞장구치기	11
15 나 전달법	11
16 칭찬 / 조언	12
17 공감적 듣기	12
18 소극적 / 적극적 듣기	13
19 공식적인 말하기	16
20 표현과 전달 방법	18
21 내용 연결 표현	18
22 담화 표지	19
23 발표	20
24 발표 내용 구성	22
25 화자의 공신력	22
26 청자 분석의 원리	23
27 메모	26
28 토의	28
29 토론 입증 책임	31
30 토론 절차에 따른 분류	31
31 토론 주제 종류	33
32 독서 토론	35
33 듣기 · 말하기 내용 체계	35
34 연설문	37
35 관용 표현	37
36 면담	39

읽기 족보

37 오독 분석법	42
38 읽기 유창성 교수	42
39 오디오 북	44
40 반복적 읽기 교수	45
41 띄어 읽기	48
42 총체적 언어 접근법	51
43 중심 내용 찾는 방법	55
44 책임 이양 교수 모형	56
45 도해 조직자	57
46 읽기 과정별 읽기 전략	59
47 상상력	60
48 읽기 내용 체계	60
49 스키마	61
50 배경지식 활성화 전략	63
51 질문하며 읽기	65
52 읽기 3-4학년 성취기준	70
53 중심 내용 간추리기	71
54 문단	72
55 중심 문장의 위치	73
56 설명 방법	78
57 요약하기	78
58 글의 구조 - 분석	84
59 글의 구조 - 문제와 해결	84
60 글의 구조 - 비교 · 대조	85
61 글의 구조 - 분류	85
62 글의 구조 - 나열	86
63 글의 구조 - 순서	86
64 사실과 의견	90
65 의견 ► 글의 유형	91
66 다양한 관점의 글	91
67 글쓴이의 생각 파악	92
68 출처의 신뢰성	92
69 읽기(독해) 수준	93
70 비판적 독해	96
71 읽기 과정모형	98
72 읽기 방법	101
72 읽기 동기	103
73 독서 태도	103

쓰기 족보

74 쓰기 내용 체계	105
75 쓰기 유창성	105
76 과정 중심 쓰기	109
77 쓰기의 정의 요인	111
78 쓰기 동기	112
79 쓰기 5-6학년 성취기준	113
80 설명방법	114
81 형식주의 / 인지주의	116
82 결과 / 과정 중심 접근	117
83 상위 인지와 자기 조정	117
84 언어 공동체	121
85 사회 구성주의 작문	121
86 쓰기 능력의 구성 요인	121
87 장르 중심 쓰기 교육	122
88 통합 중심 쓰기 교육	122
89 대화 중심 작문 교육	123
90 작문 이론 비교	123
91 예상 독자	126
92 필자의 독자 고려 전략	126
93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129
94 보고하는 글	131
95 제안하는 글쓰기	132
96 설명문 쓰기 원리	136
97 타당한 근거로 글쓰기	136
98 논거	137
99 감상을 나타내는 글	140
100 기행문	140
101 고쳐 쓰기 지도	142
102 고쳐 쓰면 좋은 점	143
103 고쳐 쓰기 수준 예	144
104 독자와 소통하는 필자	146
105 고쳐쓰고 공유하기	146
106 맥락	150
107 영역별 평가 + 내체표	151
108 평가 방법	153
109 주장 글 + 쓰기 윤리	157
110 쓰기 윤리의 유형	157

문법 족보

111 기초 문해력	159
112 입학 초기 기초 문식성	159
113 한글 맞춤법-자모의 수	160
114 음운	160
115 자음체계 (子音體系)	161
116 한글의 특성	162
117 모음	165
118 단모음	165
119 음상	167
120 글자의 짜임	169
121 받아쓰기	169
122 문자 지도 방법	171
123 기본 음절표	171
124 어문 규범	174
125 표준어와 방언	174
126 음성과 음운	175
127 최소 대립쌍	175
128 음절	176
129 일견 단어	176
130 음운 인식 활동	176
131 음운 인식 하위 기술	177
132 비분절 음운	177
133 연음	182
134 소리의 동화	183
135 음운의 변동	184
136 음운 변동 - 교체	184
137 음운 변동 - 첨가	191
138 음운 변동 - 축약	192
139 음운 변동 - 탈락	193
140 발음 오류	193
141 표준 발음 지도 내용	194
142 받침의 발음	198
143 겹받침 발음	198
144 서술어 자릿수	203
145 '-이'와 '-히'	203
146 '안'과 '않다'	204
147 맞춤법	205
148 되다 / 돼다	206
149 어휘 교육 방법	209
150 도구적 / 인지적 관점	209

151 어휘망	210
152 전기문	211
153 동형어 / 다의어	211
154 낱말의 의미 관계	215
155 반의어	216
156 유의어	216
157 문법 3-4학년 성취기준	219
158 용언의 활용	219
159 품사	221
160 띄어쓰기	222
161 단어와 형태소	224
162 단어 형성 요소	224
163 명사화 접미사	226
164 파생어	227
165 안되다 / 안 되다	227
166 지시·접속 표현	230
167 상대 높임	230
168 높임법 종류	231
169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231
170 시간표현	234
171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235
172 한글 맞춤법 ‘-ㄹ게’	235

문학 족보

173 문학 1-2학년 성취기준	237
174 음성상징어	237
175 시 낭송	238
176 감각적 표현	238
177 심상(이미지)	239
178 비유	240
179 시적화자	245
180 시의 구성 요소	245
181 시의 내용 / 형식 요소	246
182 시의 운율	246
183 동화	250
184 물화론적 사고	250
185 글의 형식상 구조	251
186 이야기의 구성 단계	251
187 인물	252
188 갈등의 종류	252
189 소설의 시점	256
190 옛이야기의 특징	257

191 속담의 교육적 가치	258
192 우리말 어휘의 체계	258
193 관용 표현	258
194 반응 중심 학습모형	261
195 상호 텍스트성	261
196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	264
197 인물, 사건, 배경 / 성찰	264
198 희곡	265

매체 족보

199 2022개정 매체 5-6학년	269
200 매체 언어	270
201 매체 영역 평가	271
202 매체 활용 능력	272
203 뉴스	273
204 광고	273
205 신뢰성 평가	274
206 그림책의 유형	277
207 그림의 역할	277
208 읽기 발달 단계	277

듣말 족보 1 | 지식 · 이해 용어해설

· 상황 맥락

-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시간, 공간 등의 물리적인 상황 중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이다.
- 사회·문화적 맥락이 집단적인 데 반해 상황 맥락은 개인적인 성격을 가진다.
- 대부분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면과 관련되는데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의 의도나 목적, 시간과 장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사회·문화적인 맥락

- 하나의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집단 지식으로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 사회·문화적인 맥락에는 사회적 상황에 관한 언어사용자의 믿음과 가치가 반영된다. 사회·문화적요소가 상이한 화자들 사이에서 의사 전달이 어려워지거나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화



- 대면 상황에서의 **상호적 발화 교환**이다.
-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친교를 목적으로 한 대화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발표



-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말하기이다.

토의



-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협력적 사고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는 담화의 한 형태이다.

토론



-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 토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반면, 토론은 이미 결론을 도출하여 주장하는 찬성 측과 이를 반대하는 반대 측 중 어느 쪽이 옳은가를 밝히기 위하여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면담



-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면담자와 응답자가 대면하여 하는 의사소통의 형태이다.
- 목적에 따라 취재 면담, 조사 면담, 상담 면담, 설득 면담 등으로 구분된다

연설



- **공적인 자리**에서 청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말하기이다.

듣말 족보 2 | 과정 · 기능 용어해설

· 내용 확인

- 듣기의 인지적 과정 중 일부로서, 들은 것으로부터 명시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 추론

- 듣기의 인지적 과정 중 일부로서, 확인한 내용 간 관계를 파악하고 **추어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 각각의 정보나 생각을 서로 연결하고 들은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연결하여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기,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며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해 보기,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내용 구조를 파악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거나 예상되는 결과를 추론하기 등이 이루어진다.



· 평가

- 듣기의 인지적 과정 중 일부로서, **내용 확인**, 추론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단계이다.
- 정보의 **정확성, 타당성, 적절성**을 평가하기,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화자의 목적과 의도** 판단하기 등이 이루어진다.

· 내용 생성

- 말하기의 인지적 과정 중 일부로서, 의도한 바를 표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이다.
- 말하기 목적이나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의 검색과 수집,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말할 내용 마련하기 등이 이루어진다.



· 조직

- 말하기의 인지적 과정 중 일부로서, 생성한 내용을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 순서**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단계이다.
- 생성한 내용 간 공통점이나 차이점 파악하기, 생성한 내용을 **시간순** 혹은 **공간순**으로 정리하기, **원인과 결과** 구별하기, **문제와 해결** 구별하기, **개요 짜기**, 내용 조직자를 활용하여 내용 조직하기 등이 이루어진다.



· 표현과 전달

- 말하기의 인지적 과정 중 일부로서, 생성, 조직한 정보를 언어적 형태로 표상하고 음성 실현을 위한 내적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음성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단계이다.
- 언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준언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비언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등이 이루어진다.

듣말 족보 2 | 과정 · 기능 용어해설

· 상호작용

- 듣기와 말하기의 비분리성, 화법의 '상호 교섭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이다.
- 상대와 자신의 의견 불일치를 조정하기, 상대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문 던지기,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이 전달하려는 의미조정하기 등이 이루어진다.



· 점검과 조정

- 자신이 듣고 말하는 과정 전반을 **상위 인지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듣거나 말하는 과정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주목하기, 최선의 듣기 혹은 말하기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기, 청자 혹은 화자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기 등이 이루어진다.

듣말 족보 3 | 가치 · 태도 용어해설

· 효능감

- 자신이 성공적으로 듣거나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나 신념**을 뜻하는 용어이다.
- 객관적으로 평가된 듣거나 말하기 능력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된 능력이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 듣거나 말하기 효능감이 높으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듣거나 말하기 능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읽기 효능감이란 자기 효능감 개념을 읽기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학생의 신념이나 기대이다. 읽기 효능감은 읽기 수행 과정에서 성공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등의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다.

교사 B: 네, 저도 실제로 기부금을 보냈다는 그 기사 봤어요.이 사례처럼 학생들이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연계된 글쓰기를 하면 쓰기를 매개로 한 소통의 힘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쓴 글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요.**

교사 A: 맞아요. 쓰기 전략을 익히는 것만큼이나 **③ 자신이 쓰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나 믿음을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적 쓰기에 대한 경험이 필자로서의 자기에 대한 이러한 판단이나 신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가치 · 태도	· 듣기 · 말하기 에 대한 흥미	· 듣기 · 말하기 효능감	· 듣기 · 말하기 에 적극적 참여
가치 · 태도	· 읽기에 대한 흥미	· 읽기 효능감	· 긍정적 읽기 동기 · 읽기에 적극적 참여
가치 · 태도	가치 · 태도	· 쓰기에 대한 흥미 · 쓰기 효능감	· 쓰기에 적극적 참여 · 쓰기 윤리 준수

국어 족보 4 | 성취기준 개발

❶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개발

- 내용 요소 간 유기적 통합을 도모
-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
- 세 가지 범주 중 가급적 두 가지 이상의 범주의 내용 요소를 서로 결합하여 성취기준을 진술

❷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개발 예시

[4국01-05] 목적과 주제를 알맞게 자료를 정리하여 자신감 있게 발표한다.

- 3개의 범주, 3개 내용 요소 결합(듣기·말하기)
- 발표[지식·이해] + 자료 정리하기[과정·기능] + 듣기·말하기 효능감[가치·태도]

[9국04-05]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의도와 효과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 특정 범주의 내용 요소를 2개 결합(문법)
- 글과 발화의 피동·인용 표현 [지식·이해] + 글과 담화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효과 비교하기 [과정·기능] + 언어표현의 의도 탐색하고 대안 모색하기 [과정·기능]

국어 족보 5 | 매체 영역 신설

❶ 1~2학년 수준의 매체 영역 지도

- 일상의 매체 자료를 글과 그림, 사진,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친숙한 주제에 대해 표현하거나 그림일기 작성하기
- 학습자가 매체 및 매체 자료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
- 읽기, 문학 영역과 연계 운영
- 일상의 매체 자료 활용
 - 그림책, 만화, 뉴스, 광고,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등

❷ 3~4학년 수준의 매체 영역 지도

- 이미 학교 밖에서 다양한 인터넷 활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
- 자료 탐색과 선택, 매체 자료의 활용과 공유 등이 학습 활동 설계 시 학생들의 실제 삶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도
- 매체 소통 윤리와 관련된 활동 지도
 - 매체 소통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 배려, 준법정신 등의 태도를 강조

❸ 5~6학년 수준의 매체 영역 지도

- 학교 밖에서의 매체 경험이 매체 단원을 학습하는 학습의 자원으로 충분히 작용
-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수행한 다양한 매체 경험이 교실의 공간을 통해 공유하며 학교와 학교 밖에서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계
- 정보 검색 활동에서 교육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검색결과가 포함될 수 있음
 - 안전한 인터넷 공간에서 검색 활동을 하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

국어 족보 6 | 기초 문식성 강화

① 기초 문식성과 관련한 범주 제시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기초 소양 함양을 강조했고 그로 인해 읽기, 쓰기, 문법 영역에 기초 문식성 관련 범주 제시
- 읽기 영역의 '읽기의 기초', 쓰기 영역의 '쓰기의 기초', 문법 영역의 '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
- '낱자, 글자, 단어, 문장'에 대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입학 초기 기초 문식성 지원

【3~4학년 기초 문식성 교육 강화 예시】

- 읽기: **유창하게 읽기**
→ 해독과 유창성 포함한 기초 문식성 강화
- 쓰기: **문단 쓰기**
→ 기초 문식성 학습 범위를 문단 쓰기까지 확장
- 문법: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 언어 관습에 맞는 말과 글을 사용하는 기초 지식인 국어 규범의 지속적 학습 기회 제공

② 기초 문식성 강화를 위한 방안

- **시간을 증배하고 한글 교육 시기 안내**
 - 교과 학습 도입 초기부터 학습 격차 발생을 예방
 - 학생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 계획을 수립
 -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점검 및 조정하는 학생 맞춤형 수업

【한 권 이상 읽기】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작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한 권 이상 읽기'로 유지하고 강화
- **교수·학습의 방향**: '국어' 성취기준에 대한 통합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한 권 이상의 도서를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선정하고, 이를 다양한 성취기준의 통합, 영역 간 통합, 교과 간 통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 관심사와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자가 자기 선택적으로 도서를 선정하도록 하고, 종이책이나 전자책 등 상황에 적합한 도서 준비와 충분한 독서 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 여건을 조성한다

국어 족보 7 | 국어교육 특징 강조

학습의 토대로써 국어교육 특징 강조

① 내용 배치 및 국어교육 특징 강조

【초등학교 3~4학년군 내용 배치】

-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 교과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고려
- 듣기·말하기 영역: **'발표'**
- 읽기 영역: **'중심 생각 파악하기', '내용 요약하기'**
- 쓰기 영역: **'학습 결과를 보고하는 글', '정확하게 표현하기', '사실에 근거한 표현'**

【국어교육 특징 강조 예시】

- [2국01-04]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른 자세로 발표한다.
 - [4국02-02] 문단과 글에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내용을 간추린다.
 - [4국03-02]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정확한 표현으로 보고하는 글을 쓴다.
 - [6국01-04] 면담의 절차를 이해하고 상대와 매체를 고려하여 면담한다
- 수업 참여를 위한 간단한 발표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바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듣기·말하기 영역의 '발표' 담화는 1~2학년군에서부터 학습하도록 함**

국어 족보 8 | 언어 환경 반영

시대 변화에 따른 언어 환경 반영 관련 성취기준

- [4국02-05] 글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파악한다.
→ 출처를 식별하는 능력은 디지털 독서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 이기에 새로 신설된 내용
- [6국01-05] 자료를 선별하여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한다.
[6국02-04]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6국03-04] 독자와 매체를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표현하며 글을 쓴다.
→ 기존의 매체 관련 성취기준도 단순한 매체를 언어 사용에 활용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더욱 구체적으로 매체 활용과 연관 짓고 있음

<읽기(5~6학년군)>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교육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육 현장의 여건과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여 학습 공간을 연결하고 확장하여 지도할 수 있다. 수업상황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육 기술 수업 도구,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플랫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독서 토론, 대화, 발표, 질의응답 등을 수행하고 독서에 관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다. 또한 독서과정과 결과를 인터넷 게시판, 누리집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 쓰기, 책 쓰기 등의 독서 활동 이외에도 카드 뉴스 만들기, 책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활동 등 매체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독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국어 족보 9 | 문학 성취기준보완

학습자들이 작품에 대해 느끼거나 생각한 점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문학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끼고,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

- [2국05-02] 작품을 듣거나 읽으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을 말한다.
→ 주체적 작품 수용 능력 강화
- [4국05-03] 작품을 듣거나 읽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소개한다.
→ 비평 관련 내용 강화

작품을 만든 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작가라는 존재를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설정

- [6국05-01]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는다.
→ 문학 소통 관련 내용 강화

작품을 읽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 위해 설정

- [6국05-06]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 '자기 성찰·계발 역량' 관련 내용 강화
→ '공동체 역량' 관련 내용 강화

국어 족보 10 |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이 가능한 성취기준 강조

- [6국01-04] 면담의 절차를 이해하고 상대와 매체를 고려하여 면담한다.
- [6국02-05] 긍정적인 읽기 동기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읽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 [6국03-04] 독자와 매체를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표현하며 글을 쓴다.
- [6국05-06]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면담하기를 지도할 때는 학습자의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과 연계할 수도 있다.
- 진로연계교육과 관련하여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관련된 직업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진로연계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관심사와 연관된 작품을 찾아 읽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듣말 족보 11 | 상호 교섭성

[2국01-03]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말차레**를 지키며 대화한다.

[2국01-03] 이 성취기준은 구어 의사소통의 **상호 교섭성**을 인식하는 출발점으로, 대화 상황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순서를 교대**하며 구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기, 다음 말할 사람을 선택하여 다음 말할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거나, 고갯짓, 시선, 억양 등의 **말차레 교환 신호**를 활용하여 다음 사람이 말차레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말차레 교환 신호를 확인하여 자신의 말차레 지키기 등을 학습한다.

① 상호 교섭성

음성언어 의사소통은 화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자가 이를 이해하는 활동이 아니라 실제적인 발화 상황 안에서 참여자가 함께 교섭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가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즉, 의미는 말하기를 통해 전달되고 듣기를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에 의해 **상호 교섭적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준비된 말하기'라고 해서 원고를 보고 그대로 읽어서는 안된다. 준비된 말하기라 하더라도 이것 역시 **청중과 함께 의미를 공유해 가는 상호 교섭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은 청중을 보면서 준비한 내용을 기억하여 말하고, 청중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화법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준비된 말하기'를 할 때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과 구체적 담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을 지도하고, 실제 청중들 앞에서 '준비된 말하기'를 수행해 보게 하는 과정을 모두 경험하도록 한다.

상호교섭적 성격이란 화법은 참여자들이 각각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교섭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임을 가리킨다.

③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 - 집중하기

청자의 듣는 태도는 화자에게 수많은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청자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침묵하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등은 그 자체로 화자에게 많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 청자의 반응은 얼굴표정, 고개 끄덕임, 침묵 등의 **비언어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질문하기**와 같은 적극적인 언어 표현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듣기 또한 표현 행위라 할 수 있다.

- **음소, 낱말, 어구, 문장** - 언어적 요소
- **억양, 강세, 속도** - 준언어적 요소
- **얼굴 표정, 시선, 몸짓** - 비언어적 요소

듣말 족보 12 | 말차레 / 순서 교대

1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관계없는 끼어들면 귀 기울여

예시 답안

말차레를 지켜야겠지.

- 친구가 말할 때에는 **끼어들면** 안 돼.
-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해.
-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해.

상대에게 말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상대방에게 물어본 뒤에 말하면 좋아요.

2 말차레를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 알기

- 말을 할 때에는 말의 주도권에 해당하는 말차레가 있다. 말차레는 **먼저 말한 사람**에게 있고, 이를 가져가려면 상대의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다 말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해야 함을 알도록 한다.
- 대화를 할 때에는 **말차레**와 함께 **대화 내용, 듣기 태도**도 생각해야 함을 알도록 한다.

3 순서 교대의 의미와 유의점

- 대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대화에 참여해 실제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기회에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 결과물을 **순서 교대**라고 한다.
- 모든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진행 방향과 순서 교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대화 참여자는 적절한 말차레 권리를 가져야 한다.
- 현재의 화자는 말차레 중간에는 자신의 발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하고, 말차레가 끝났을 경우에는 **비언어적 신호나 언어적 신호**를 다른 참여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대화 진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가장 비중이 높은 사람은 말차레의 순서를 배당하는 발화를 하여 적절한 순서 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순서 교대 적정 시점(일반적으로 문장이 끝나는 지점, 즉 문장 종결 어미)에서는 대화의 주제나 대화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서 선택의 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4 상황 태도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지녀야 할 상황 태도에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

- 평등의 원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이끌어 가려는 원리를 말한다.
- 인정의 원리**: 대화란 삶의 공유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상대의 삶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공손의 원리**: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주고받는 말의 태도를 말한다.
- 교섭의 원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서로 의미를 교섭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듣말 족보 13 | 대화의 원리

● 대화의 원리 -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가 지켜야 할 원칙

공손성의 원리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해야 함.
	-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 -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 -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 -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
협력의 원리	①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표현은 최소화 ②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부담되는 표현은 최대한 ③ 칭찬의 격률: 듣는 이에 대한 칭찬은 극대화 ④ 겸양의 격률: 말하는 이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 ⑤ 동의의 격률: 다른 사람과의 의견을 최대한 일치시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해야 함.
순서 교대의 원리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해야 함. -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 -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함 - 대화를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는다. - 상대가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의 차례를 빼앗지 않는다. -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지 않는다. - 대화의 화제와 관련이 없는 화제를 꺼내어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의 범주

- 개방성**: 상대의 생각에 대한 열린 태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의 관점에서 표현하기
- 비방적 표현에 대한 경계**: 욕설 같은 부정적 표현 자제하기
-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 상대의 입장 및 의견이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하기
- 적극적 경청**: 화자의 말에 관심 갖기
- 진실성**: 정직하게 말하기
- 표절에 대한 경계**: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출처 밝히기
- 공정성**: 편견 최소화

듣말 족보 14 ■ 맛장구치기

1 맛장구치는 방법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맛장구치는 말을 알맞게 써 봅시다.



- 맛장구치는 방법에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방법**, **자신의 의견을 짧게 드러내는 방법**, **공감하며 호응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친구들과 맛장구치는 말을 사용해 이야기할 때는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2 공감을 키우는 대화

① 관심 갖고 질문하기

A: 형, 이거 봐! 나, 이 빠졌다.
B: 와, 흔들리던 이가 빠져서 엄청 시원하겠네. 어쩌다 빠졌는데?

② 적절히 맛장구치기

A: 너무 급해서 막 뛰어들어갔더니, 글썄 남자 화장실이지 뭐야.
B: 어머머, 웬일이니! 진짜 창피했겠다.

3 공감적 의사소통의 특성

- **객관적 관점**에서 의사소통한다
-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이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
- **자기 성찰**의 과정이다

듣말 족보 15 ■ 나 전달법

1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자신의 기분을 말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할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을 때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어서 있었던 일

기뻐서 내 기분

2 자기 노출

자기 노출이란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 느낌과 경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 노출은 네 가지 속성**을 지닌다.

- ① 이야기의 대상은 '자신'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 자신에 관한 것을 말해야 한다.
- ② 이야기를 타인에게 해야 한다. 말을 듣는 분명한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 ③ 화자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자기 노출의 의도를 화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전달된 것이어야 한다.
- ④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명시적인 언어로 청자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3 '나 전달법'의 개념과 요소

대화에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화 방법으로는 '나 전달법(I-message)'이 있다. '나 전달법'이란 주어가 일인칭인 '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대화 방법을 말한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첫째, **'문제를 유발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둘째,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셋째, **'나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듣말 족보 16 | 칭찬 / 조언

① 칭찬하는 방법

- 열심히 노력하는 점을 찾아 칭찬해 줍니다.
- 좋은 점을 너무 부풀리지 않고 진심으로 칭찬해 줍니다.
- 칭찬하는 점과 그 까닭이 드러나게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는 방법】

- **언어적 강화:** 칭찬받는 대상의 특성과 개성에 초점을 두며 행동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강화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임.
- **격려:** 칭찬받을 대상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칭찬을 포함하며, 칭찬받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냄.
- **사회적 인정:** 칭찬받는 대상의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둬. 칭찬받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덕분에'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남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함.

② 조언하는 방법

-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듣는 사람이 고쳤으면 하는 습관을 알려 줍니다.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 듣는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며 격려해 줍니다.

③ 의사소통의 네 가지 수단: 언어, 표정, 몸짓, 말투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네 가지 수단 즉 언어, 표정, 몸짓, 말투는 두뇌에서 처리된다. 이 중 언어와 말투는 청각적으로 처리되고 표정과 몸짓은 시각적으로 처리된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 약간의 단서를 제공한다. 또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내용도 중요하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표정이 있고 우리는 표정으로 사람을 읽는다. **표정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들을 때 얼굴에 드러난다. 몸짓은 걷고, 앉고, 서 있는 등의 여러 자세로, 개인의 청사진과 같다. 말투와 목소리로 우리는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수단으로 입수된 정보는 두뇌의 여러 부위에서 처리되지만 결국 두뇌는 이 정보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판단한다

듣말 족보 17 | 공감적 듣기

공감적 듣기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이입해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는 '너 중심 듣기'라고 할 수 있다. 공감적 듣기는 일단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공감적 듣기의 핵심은 자신의 견해를 개입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 주는 '들어 주기'에 있다. 들어 주기에는 '소극적 들어 주기'와 '적극적 들어 주기'가 있는데, **소극적 들어 주기**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이야기의 맥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축을 이룬다. 격려하기 기술은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다음과 같은 공감적 듣기의 표지들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 관심 표현: 그래서? / 그런데?
- 공감 표현: 그러게 말이야. / 정말 그렇고말고.
- 동정 표현: 저런. / 쫓쫓. / 저걸 어쩔?
- 기쁨 표현: 정말 잘됐다. / 멋지다. / 신난다.
- 놀라움 표현: 어머. / 정말?

적극적 들어 주기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정리**해 주고 **반영**해 주는 역할을 통해서 화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아들: 엄마,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 엄마: 우리 아들이 몸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 아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학원에 안 가면 좋겠어요. 숙제도 안 했고…….

위의 대화 상황에서 엄마는 일체의 판단을 유보한 채 감정 이입을 통해서 아들의 마음 상태를 추측한 뒤, 이 추측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엄마의 반응은 일단 아들에게 반발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 갈 수 있게 해 준다.

공감적 듣기는 이와 같이 화자가 말한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거나 화자의 말을 확인하는 정도의 언어적 반응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 주는 훌륭한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적 듣기를 하려면 무엇보다 비판하거나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수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 줌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적 듣기는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상대의 말을 수용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집중해 들음으로써 상대가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매우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① 소극적 듣기

소극적 듣기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 '집중하기'는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집중해 눈을 맞추고, 몸을 향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적절한 손짓을 하는 것이다. '격려하기'는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술이다.

② 적극적 듣기

적극적 듣기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해주는 구실을 해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다. '요약하기'는 화자의 말을 그대로 요약해 재진술해 주는 기술로, 상대의 말을 분명히 이해했음을 알리고 화자의 현재 상태에 공감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반영하기'는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 줌으로써 공감을 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사람들은 말이 의사소통의 주요 통로이고, 비언어적 행위는 단지 이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언어와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행위도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언제나 그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이미 많은 의사소통 연구가들은 비언어적 측면이 면 대 면(face to face) 상호 작용에서 전달되는 내용이나 의미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특히 친밀하거나 적대하는 상황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보다 훨씬 큰 위력을 가진다.

- **표정이나 몸짓은 말하고 있는 것을 강화하거나 완성한다.**
“우리는 발성 기관으로 말하지만 온몸으로 그려 낸다.”라는 말은 이를 잘 나타낸다. 옷이나 신체 장식(머리 모양, 화장, 보석류) 등의 선택과 주변의 물건들, 그리고 행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한다.
- 눈 맞춤을 하여 상대방에게 주목하고 말차레를 주고받는 등 상호 작용을 조정한다.
- 머리를 끄덕이거나 중얼거리는 소리 등은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동안 청자가 화자에게 동의하거나 계속 말 듣기를 원한다는 **격려**의 뜻을 전달하는 등 여러 종류의 피드백을 수행한다.

이렇듯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초가 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만큼이나 **표정, 몸짓, 자세**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고마움이나 반가움을 전하고 슬픔이나 걱정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인사말 자체라기보다 비언어적 표현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4	기출 뽐내기	
	맞장구치기	A - 1

1. (가)는 김 교사가 지도한 2학년 국어 수업의 개요이고, (나)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점]

(가) 수업 개요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 학습 목표 확인 - 학습 목표: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며 대화를 나눈다.
전개	◦ 활동 1: 상대방에게 반응하며 듣는 것의 중요성 알기 ◦ 활동 2: 대화를 나눌 때 반응하는 방법 알기 ◦ 활동 3: 적절하게 반응하며 대화 나누어 보기
정리	◦ 정리 및 평가

(나)

진희: 오늘 급식이 참 맛이 있었어.
민영: ○(고개를 끄덕인다.)
진희: 나는 계란말이가 제일 맛이 있었어.
준수: ○나도 그래.

- 1) ○과 ○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 두 반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2점]

• 공통점: _____

• 차이점: _____

【모범 답안(예시)】

공통점: 맞장구치기 전략
차이점: ○은 비언어적 표현이고, ○은 언어적 표현이다.
☞ 유의 사항
모범 답안(예시)과 같이 정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모두 0점으로 처리함.

2018	초특 기출 뽐내기	
	반언어적 요소	A - 1

1. 대본의 ㉠~㉣ 중 반언어적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2점]

- 민기: (㉠눈으로 웃으며) 현아야, 자전거 타고 놀지 않을래?
 ◦ 현아: (㉡힘없는 음성으로) 손을 저으며) 미안해.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자전거를 못타겠어
 ◦ 민기: (㉢눈을 크게 뜨며) 갑자기 왜 배가 아픈거야?
 ◦ 현아: (㉣낮은 어조로) 배를 만지며) 점심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봐
 ◦ 민기: (㉤걱정스럽게 어깨를 토닥이며) 그렇구나, 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네!

【모범 답안(예시)】

㉠, ㉣
☞ 유의 사항
모범 답안(예시)과 같이 정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모두 0점으로 처리함.

2012	초특 기출 뽐내기	
	반/비 언어적 요소	A - 3

3. (나)는 수업 후 두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점]

송 교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호가
 ○ 반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수업은 경호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경호가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 2) (나)의 ○에서 말하는 반언어적(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모범 답안(예시)】

준언어적 요소 (반언어적)
역양, 강세, 속도, 일시적인 침묵 등과 같이 말에 첨가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비언어적 요소
2) 몸짓, 자세, 표정 등과 같이 말이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 유의 사항
밑줄 친 부분을 활용하여 모범 답안(예시)과 유사한 내용을 1가지 썼으면 맞게 처리함.

2011	중등 기출 뽀개기	
	공감적 듣기	A - 1

1. 다음을 읽고, 공감적 듣기의 효과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

김 교사는 국어 시간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으로 ‘최근에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속상했던 상황과 그때 오갔던 말’을 적어 보게 한 후 이를 짝과 함께 역할극으로 재연해 보게 하였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다.

학생 A: 이번 달에 모둠 발표 과제가 3개나 있어. 나는 모둠으로 해야 하는 과제는 정말 싫어. 모둠 구성원들과 서로 시간 맞춰야 하지. 의견이 다르면 계속 토의해야 하지, 같이 모여서 발표문 써야 하지, 시간도 많이 들고...

학생 B: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렇지.

학생 A: 남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어.

학생 B: (상대를 바라보며) 그래도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학생 A: 그렇지만 말은 부분을 잘 안 해 오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모둠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비협조적인 사람 뭉까지 내가 해야 할 때도 있어. 차라리 과제를 혼자 하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어.

학생 B: ㉠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끝도 없잖아. 모둠 과제니까 좀 손해 본다 싶더라도 참고 해야지.

학생 A: 누가 모르니? 그만하자. 너랑 이야기하니까 나만 못한이 같아 더 화가 난다.

(나)

공감적 듣기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듣는 방법이다. 공감적 듣기는 크게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로 구분한다. 공감적 듣기는 참여자 간에 메시지가 원활하게 소통되게 할 뿐만 아니라 ㉡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작성 방법>

- 공감하며 듣고 반응하기의 맥락으로 볼 때, ㉠의 문제점을 ㉡의 관점에서 1가지 서술할 것
- 학생 B에게 필요한 ‘적극적 들어주기’ 방법의 명칭을 쓰고, 이 방법을 적용하여 ㉠의 표현을 수정할 것

【모범 답안(예시)】

- 판단(분석, 비판)부터 하는 점에서 대인관계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 학생B에게는 반영하기 방법이 필요하며, ‘친구들 뭉까지 하다보니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속상했구나. 많이 힘들었겠네.’로 수정할 수 있다.

2018	중등 기출 뽀개기	
	공감적 듣기	A - 1

1. 다음 소설에서 아내가 하고 있는 청자의 역할을 예로 하여,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지도하고자 한다. ㉠, ㉡에 나타난 듣기의 방법과 효과를 조건에 따라 설명하시오.

<조건>

- ‘방법’은 일상적 언어 표현을 사례로 들어 설명할 것.
- ‘효과’는 ㉠, ㉡의 차이점을 드러낼 것

아내의 성화를 견디다 못해 노인은 결국 마지못한 어조로 그 날밤 일을 돌이키고 있었다. 어조에는 아직도 그 날 밤의 심사가 조금도 실려 있지 않은 채였다.

“그래 저를 나무래서 냉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니라. 그리고 더운 밥 지어 먹여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 가지고 동도 트기 전에 길을 되돌려 떠나 보냈더니라.”

“㉠그래 그 때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떻기는야 팔린 집이나마 거기서 하룻밤 저 아그를 재워 보내고 싶어 싫은 골목 드나들며 마당도 쓸고 걸레질도 훑치며 기다려 온 애미였는데 더운밥 해 먹이고 하룻밤을 재우고 나니 그만만 해도 한 소원은 우선 풀린 것 같더구나.”

“㉡그래 어머님은 흡족한 기분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이시겠군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머님은 정말로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실 수 있으셨을까 말씀이에요.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하더라도 어머님 자신은 그 때 변변한 거처 하나 마련해 두시길 못하셨을 처지에 말씀이에요.”

“나더러 또 무슨 이야길 더 하라는 것이냐?”

【모범 답안(예시)】

㉠	방법	‘그 때 넌 어떤 기분이었니?’와 같은 질문하기 방법 사용
	효과	화자가 화제에 대해 더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방법	‘네 말은 ~라는 의미구나.’와 같은 재진술하기 방법 사용
	효과	화자의 정보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